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3년 5개월만에 콜금리 인상
- 미국의 계속되는 위안화 절상 압력

## 경영 노트

- 실패기업에 이르는 7가지 징후

## 사회 트렌드

- 따뜻한 화폐(warm currency)
- IDD(Internet Deficit Disorder)

## 저널 브리프

-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의 영향

## 洗心錄

- 스몰-월드 현상(small-world phenomenon)

### □ 3년 5개월만에 콜금리 인상

-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종전 3.0%에서 3.25%로 0.25%p 인상
  - 2002년 5월 연 4%에서 4.25%로 콜금리가 인상된 이후 처음으로 콜금리가 인상되면서 한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일단락 됨
  - 이번 콜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장기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시중 유동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향후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콜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경제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
  - 한은은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 수준(3.25%)이 여전히 낮아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 다만 콜금리 인상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겨 금융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서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 미국의 계속되는 위안화 절상 압력

- 다음주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국 G20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의에서 존 스노우 美재무장관은 중국 위안화 절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와 對中 무역에서 오는 적자폭의 증가로 위안화의 추가 절상이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를 2.1% 절상했지만 1~8월 對美 무역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7%나 증가한 698.3억 달러를 기록
  - 미국은 2005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보다 909억 달러 증가한 7,890억 달러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IMF 전망)
  - 반면 중국은 환율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실패 기업에 이르는 7가지 징후\*

- 실패 기업에는 기존 성공 전략에 안주해 “강한 타성”(active inertia)에 져어버리게 만드는 7가지의 사전 징후가 나타남
- 첫째, “CEO가 주요 경영 잡지의 커버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
  - 언론이 특정 기업의 성공 방식에 대한 칭찬을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면 그 기업은 타성에 져어버림
- 둘째, “유명 경영학자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업“
  - 유명 학자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업 가운데 장수 기업은 별로 없음
  - 톰 피터스가 그의 저서 <In search of Excellence>에서 초우량기업이라고 지칭했던 43개 기업 가운데 현존 기업은 6개에 불과함
- 셋째, “CEO가 자사의 성공 사례를 책으로 내는 기업”
  - 자신의 성공 방식을 외부에 공표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변화가 필요하게 될 때 이를 바꾸는 게 어려워짐
- 넷째, “번듯한 새로운 사옥을 건립한 기업”
  - CEO들은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게 위해 사옥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등한시함
- 다섯째, “경영진이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기업”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 기존 성공 전략을 답습하는 데 그침
- 여섯째, “회사 이름을 딴 경기장이 등장한 기업”
  - CEO가 자사 이름의 경기장을 선보여 과시하는 경우가 있음. 이미 파산한 엔론을 비롯, HP에 인수된 컴팩, 아메리카 에어라인 등이 해당됨
  -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외부 이미지에 너무 신경쓰면 실패로 이어짐
- 일곱째, “주변에 경쟁업체가 모여 있는 기업”
  - 미국 자동차 Big 3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 영국 철강업체 단지인 셰필드와 같이 주변에 동종업체가 몰려있는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전략과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혁신이나 변화를 피하기 어려움

\* 본 자료는 영국 *Financial Times*의 “The Risk of Active Inertia: How Companies Can Spot the Danger Signs” 2005.10.3.를 요약 정리한 것임

## □ 따뜻한 화폐(Warm Currency)

- 개인 화폐, 혹은 지역 특유의 화폐를 일컫는 용어로, 물물 교환 경제에서 거래의 공식적인 수단이 됨
  - 공식적인 돈이 없어도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대안 화폐’라고도 부를 수 있음
  - 향후에는 이러한 ‘따뜻한 화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주요 판매업자와 소매상들이 모두 이 따뜻한 화폐 운동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켈거리에서는 ‘따뜻한 화폐’가 다음과 같이 운용됨
  - “캔싱턴에 위치한 서니사이드 마켓에서는 아기를 봐준 대가로 당근 한 자루를 살 수 있다. 트렌드 의류점에서는 눈을 치워준 대가로 바지 한 벌을 살 수 있다. 곧 있으면 각종 공공요금을 가정에서 재배한 채소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송파구에서만 통용되는 SM(Songpa Money)이라는 대안 화폐가 있는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700명의 회원들이 자동차 정비부터 아이 돌보기까지 물건과 서비스를 SM머니로 거래한다고 함
  -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다 팔 서비스나 물건만 있으면 SM머니를 벌어서 다른 회원이 제공하는 것을 살 수 있음
  - 공동체에서 얻는 이웃 간의 믿음, 상부상조는 ‘따뜻한 화폐’를 쓰며 얻는 또 다른 소득이라고 함

## □ IDD(Internet Deficit Disorder, 인터넷 결손 장애)

- Internet Deficit Disorder의 약자로, 인터넷에 의해 아이들의 주의력과 논리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함
  -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정신없이 옮겨 다님
  - 이렇게 자란 아이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차분히 참아 내지 못하며, 무엇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능력이 결여된다는 것임

□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의 영향\*

-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고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커질 경우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 이를 개선하는데 주력해 왔음. 이에 따라 중국은 전체 무역흑자의 10배에 달하는 對美 무역흑자를 기록,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큼
- (환율 조작국 지정의 영향)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이 중국의 對美 수출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美中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에 의해 발동되는 슈퍼 301조에 따라 모든 對美 수출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르는 무역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 대한 영향)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對韓 통상 압력, 원화 강세, 중국의 對韓 통상 압력 증가 등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미국의 통상 압력)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가할 때 먼저 한국에 통상 압력을 높여왔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받을 수 있음
  - (원화 가치 강세)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 흑자는 더욱 증가할 것임. 이는 원화 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 (중국의 통상 압력) 미국의 對中 통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중국 또한 이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국은 화교계 국가들을 제외하면 對中 무역 흑자 규모가 가장 크므로 중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이 커질 것임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10.17)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스몰-월드 현상(small-world phenomenon)

거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물리적 세계에 있는 물체 혹은 위치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른바 물리적 공간(physical distance)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란 개인의 부, 교육, 인종, 종교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사람들 간에 느끼는 거리다. 같은 물리적 공간에 속해 있더라도 백인과 흑인 간의 사회적 거리는 백인들간의 사회적 거리보다 훨씬 멀다. 비슷한 개념으로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도 있다. 서로 친하고 기분이 통하는 친구라면 그가 미국에 이민을 가 있어도 심리적 거리는 가족만큼 가깝다.

최근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는 네트워크(network) 공간이 연구되고 있다. **네트워크 공간의 아주 간단하고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스몰-월드 현상(small-world phenomenon)으로, 지구상의 누구나 여섯 단계를 건너면 아는 사이라는 것이다.** 이는 1967년 하바드 대 사회심리학 교수인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의 연구가 첫걸음이었다.

그는 보스턴과 오마하에 있는 약 300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최종 수신인은 보스턴 증권거래인이며 주위에 그를 알만한 친구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라는 안내문을 곁들여서 말이다. 즉 일반 사람들이 보스턴 증권거래인까지 가는 데 몇 단계의 네트워크를 거치는가를 알기 위한 실험이었다. 놀랍게도 60통 이상의 편지가 증권거래인에게 도달했으며, 그 편지가 사람의 손을 거친 횟수는 평균 6회에 불과했다. **밀그램의 결론은 물리적, 사회적 공간에서 아주 멀리 있는 듯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신경쓰는 것이 전염병이든, 문화적 유행이든, 주식 동향이든,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좁은 세상이다. 네트워크 상의 이웃들과 마음놓고 교감하라. 지구상의 누구나 6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일 테니까. 심지어 여섯 단계만 거치면 우리는 부시 대통령에게도 도달할 수 있다.

**“The only place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is a dictionary.”**

**일(work)보다 성공(success)이 먼저 나오는 곳은 사전밖에 없다.**

**비달 사순(Vidal Sassoon, 1928~ ) 英 헤어디자이너**